

眞興王十年己巳爲梁武帝中大同四年遣使新羅送釋迦佛舍利王率百官奉迎入宮剃髮被袈裟自號法雲王妃亦爲尼眞平王以法雲之孫事佛惟謹其日命元曉創是寺奉舍利建塔自爲願堂此在信史願諸僧不察耳眞平之世文獻蔑如薛弘儒崔文昌皆未及出世今得於塔中者其文如蟲涎鳥跡所稱年號亦用本那一時私記吾惡乎證道覺又言佛舍利還安時計數則亡其一蒼黃莫測寺僧聽眼敬捨於大雄殿砌石間自云夜夢神告如此又有一暗者乞食於寺寺僧戲謂汝誠心助塔役佛應使汝言暗者如指竭力一夜忽大叫曰夢見一老僧持金刀截吾口自定揚言善唱歌佛之靈昭昭也余笑而應曰奚獨於斯八萬大藏經所教福德因果無一非誘人爲善善則徵銘曰於惟舍利疇辨之詳六籍收闕一理靡彰惚恍有象聞諸伯陽玄珠象罔信者蒙莊孰火其軀示現精光我誦佛書淨行金剛四相既泯六塵若亡菩提般若結爲寶藏如百千燈布耀燦煌是其靈明徧滿十方西來慧珠東照博桑石塔窺峩浩劫空蒼誰其啓者明玉斯誠衆目具瞻薦以華香五層突兀億代禎祥刻詩員珉傳告法場即心即佛妙覺津梁

乾隆 十五年庚午孟春

青泉居士申維翰謹志 立

〔左側面〕

大施主兼願畚秩「嘉善金順南兩主」子護軍時元「時享」遠願寺「通政聰眼」爲考通政孔平素兩主「嘉善鴻食」爲考李泰望兩主「正敏」通政元海前入畚「爲考李進和兩主」呂熙「爲考李德興兩主」會清「爲考姜順男兩主」就欽「趙芝碧」通政惠元「通政坦雲」金是漢「通政信行」道覺「爲考襄成必」崔儉同兩主「護軍張雲翰」幼學金聲振「千先益」通政秀演「嘉善眞下」金召吏「通政尹先」智日「爲母吳吳召吏朴」雪明「廊岑」三下

〔右側面〕

塔重修訂「宣定」山中靈湛(湛)「三性」智雄「本寺」和尚勝佑「ヨ明」世正「玉明」記會均「緣化自迂」彭刻大言「冷金貴奉」供養月英「都監最衍」片將「性悟」恕眞「文益」居士法信「就文」通政曇演「曇贊」金日兌「崔斗花」助緣「桐花」佛旺「銀海」紙林「寶鏡」遠彭「泉谷寺」天龍「安旺」巨洞「畚」護軍朴銀奉「通政韓戒必」孫召吏「哲弘」通政黃老正「通政戒邏」本寺址踏查는 지난 六月十一日 豫期치 않았던 機會에 實施되어 調査

具不備 現場의 麥作物의 障害와 限定된 時間에 充分히 調査를 못하고 再 調査를 期하지 못한채 故高裕燮氏의 周忌에 즈음하여 敬虔한 마음으로 拙稿를 紹介한다.

〔註〕層突사이에 「母以色相讚眞常」의 八字가 있다는 바 서울權相老氏所 藏 青泉居士文集에 依한다함.

扶餘 舊衙里 寺址心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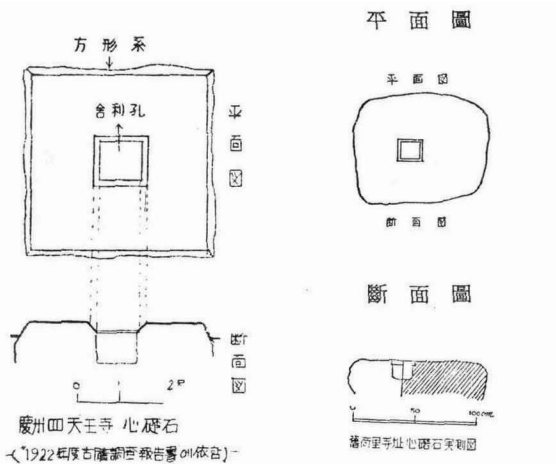
李 殷 昌

扶餘邑 舊衙里 現扶餘警察署 岱地가 바로 寺址였던 바 日帝末에 藤澤 一夫氏에 依하여 寺址發掘調査가 있었다. 이에 對한 調査報告書가 나오 지 않았기 때문에 仔細히 알 수 없으나 寺址의 伽藍配置形式은 既往에 發掘調査된 軍守里寺址, 定林寺址 扶蘇山寺址 等과 또 最近에 發掘調査된 金剛寺址①와 같이 百濟의 典型的인 堂塔伽藍制를 하였다 하며 寺址에서 「天王」이라는 在銘瓦片이 出土되어 百濟 天王寺址로 推定된바도 있다. 그리고 當寺址에서 木造塔心②礎石이 出土되었으니 百濟 當時에는 출 룡한 木造方塔이 建立되었던 모양으로 或三國史記 卷二八 百濟本紀六 義慈王二〇年條에 「三月 風雨暴至震天王, 道讓二寺塔 云云」한 天王寺塔 이 곧 舊衙里寺址 木造塔址에 該當되는 것으로 推測해 봄직 하다. 이 舊衙里寺址 木造塔址 心礎石은 現在 國立博物館 扶餘分館에 所藏 되어 있는 바 오래前부터 筆者의 關心거리가 되었다. 이에 그 調査된 事項을 記述하여 心礎石의 모습을 살펴 보기로 하고 나가서 百濟의 木 造塔의 心礎石에 對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二

大抵 心礎石은 木造塔婆의 擦柱座가 되는 한편 舍利裝置를 爲하여 놓 여지는 것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三國時代에 佛敎傳來와 더불어 盛

面을 다듬어서 大略 其中央에 舍利裝置의 方孔이 鑿여 있었다. 舍利孔은 一邊 一七·五cm 深三cm 와 또 一邊 一二cm 深一〇cm 의 二段方孔인 바 上段은 四角板石蓋를 덮어 있었다. 百濟故地에 많은 塔址가 있지만 心礎石 이 나온 塔址로서는 앞서 軍守里寺址의 心礎石과 이 舊衙里寺址의 心礎石이 있을 뿐이다. 特히 舊衙里寺址 心礎石은 典型的인 體裁를 갖춘 것으로 곧 百濟系心礎石으로서 百濟故土인 扶餘 軍守里寺址의 方形造出이 있는 心礎石과 相通되며 밖으로는 百濟 造塔匠 阿非知④가 建立한 慶州 皇龍寺九層塔址의 圓形凹穴이 있는 心礎石⑤과 또 百濟 造寺工의 東渡直後에 建築된 日本 飛鳥寺塔址의 方形舍利孔이 있고 다시 方孔東壁에 龕狀橫穴이 있는 心礎石⑥等 遺例에 連結되는 것이다. 이 러한 舍利裝置法은 三國遺事에 보이는 皇龍寺九層塔記의 「慈藏以五臺所授舍利百粒分安於柱中」이라든가 日本書紀에 보이는 飛鳥寺塔記의 「佛舍利置干法興寺(飛鳥寺)刹柱礎中」이라든가 扶桑略記에 보이는 日本 四天王寺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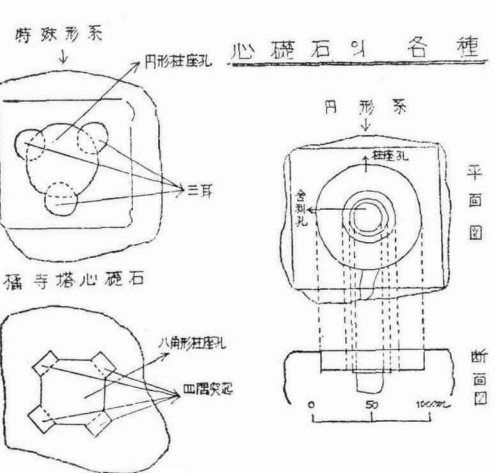


慶州四天王寺心礎石 (『1922年度古蹟調査報告書』에 依함)
舊衙里寺址心礎石實測圖

行하던 堂塔式伽藍의 木造塔婆의 心礎石으로 經營되었다. 舊衙里寺址의 心礎石은 發掘當時의 塔址의 모습으로 보아 方三間制(一面三間)에 四天柱礎가 配應된 多層方塔의 擦柱座로서 또 舍利裝置를 爲하여 이룩된 것이다. 心礎石의 長은 一〇八cm 幅은 九四cm 厚는 五〇cm 의 數値를 가진 花崗岩質의 自然石인데 上

記의 「以髻髮六毛、相加佛舍利六粒 籠納塔心柱中」이라 한 文獻과 相通되는 것들로서 이는 佛教傳入初의 舍利裝置의 最古의 遺例이며 百濟의 造塔舍利裝置法이 新羅·日本에 傳播되어 그 樣式을 같이 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게 한다.

心礎石의 各種



日本巨勢寺心礎石 (『日本文化史』에 依함)
日本若草加藍寺心礎石 (『日本文化史』에 依함)

以上 記述한 바에 依하면 心礎石의 舍利孔은 方形系와 圓形系로 區分할 수 있다⑦ 곧 前者 方形系는 本稿에 問題視되고 있는 舊衙里寺址 心礎石舍利孔을 비롯하여 新羅 慶州의 祇林寺址心礎石舍利孔, 四天王寺址心礎石⑧舍利孔, 望德寺址心礎石⑨舍利孔 등과 日本의 飛鳥寺址心礎石舍利孔을 들 수 있다. 後者 圓形系는 上述한 慶州 皇龍寺九層塔址心礎石舍利孔을 비롯하여 日本에서 盛行을 보이며 彼土 山田寺址心礎石⑩舍利孔 巨勢寺址心礎石⑪舍利孔 등이 있다. 그리고 繼續하여 百濟에서 東渡하는 工匠僧侶들로 하여금 佛教藝術이 急速度로 發展하여 이른 바 새로 飛鳥文化를 形成하게 되자 이에 따라 心礎石의 舍利裝置도 그 樣式과 手法에 異彩를 띠게 되었다. 곧 橋寺塔址心礎石의 三耳圓形舍利孔, 法薩寺塔心礎石의 四耳圓形舍利孔⑬(歸斗狀圓孔) 등과 또 苦草伽藍塔址의 四隅突起八角形舍利孔等과 같이 特殊形態를 보이는 心礎石이 있다는 事實도 잇어서 는 안 되겠다.

註

- ① 金剛寺址는 扶餘郡恩山面琴谷里(금강이) 芝川邊에 東向한 百濟伽藍인바 一九六四年 三、四月에 國立博物館主管下 塔址·金堂址·講堂址·廻廊址가 發掘調査되었다.
- ② 史學研究第十四號拙稿「金銅塔身の 造成 樣式問題——扶餘金城山寺址出土——」
- ③ 一九三六年度古蹟調査報告「第四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
- ④ 三國遺事卷四塔像皇龍寺九層塔條.
- ⑤ 高裕燮著 韓國塔婆의 研究「木造塔婆(一〇面)參照」.
- ⑥ 1、歷史學報第十輯 黃壽永論文「日本飛鳥寺遺跡發掘調査概要」.
2、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刊「飛鳥寺遺跡發掘調査報告」.
- ⑦ 高裕燮著 韓國塔婆의 研究「朝鮮塔婆의 本面目(木造)塔婆」參照(幅七寸五分·深五寸의 方孔이 있는 礎石).
- ⑧ 四天王寺址心礎石——一邊長三尺八寸餘·高三寸의 方形造出이 있는 方右中央에 一尺과 八寸大의 二段方孔이 있다(一九二二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四天王寺址」條).
- ⑨ 望德寺址心礎石——一邊長二尺一寸大의 八角形中央에 二段方孔이 있다(前掲書「望德寺址」條).
- ⑩ 山田寺址心礎石——上宮聖德法王帝說의「其柱礎中 作圓穴」이라는 데서 圓形舍利孔이 있음을 알 수 있다(石田茂作解說에 依한).
- ⑪ 巨勢寺址心礎石——一邊長 一五〇cm의 方形花崗岩上面에 徑九〇cm 深 一二cm의 圓形柱座孔안에 다시 舍利小孔이 鑿혔다(福山敏男解說에 依한).
- ⑫ 橘寺塔址心礎石——一七三cm에 一八二cm의 自然石上面에 方形造出이 있고 그 中央에 三耳가 있는 圓孔이 鑿려있다(石田茂作解說에 依한).
- ⑬ 法隆寺塔心礎石——心礎石中央에 徑二二·八cm 深 二四cm의 漏斗狀圓孔이 있다(石田茂作解說에 依한).
- ⑭ 若草伽藍塔址心礎石——幅 二七〇cm 高 一一二cm의 自然石 上面中央에 一邊長二八·六cm의 八角形柱座孔을 만들고 四隅에 突起部를 이룬것이다(石田茂作解說에 依한).

達城 玄風の石塔二例

金正基

昨夏 慶北 達城郡、慶南 昌原郡、金海郡을 旅行한 바 있어 마침 達城郡 玄風面 附近에서 塔材 一部와 石塔 一基를 볼 수 있었다. 旅程에 餘裕가 없이 精査치 못한채 두었으나 그 概略을 簡單히 紹介코저 한다.

一、玄風 鄉校內 石塔材

玄風部落 東端에서 約三〇〇m 떨어진 鄉校가 있다. 이 鄉校의 明倫堂과 大成殿의 基壇및 礎石의 一部에 確然한 石塔部材가 散見된다. 즉 明倫堂에서는 亂雜한 大小 各種의 石材로 構築된 石壇石가운데 塔下層基壇의 地臺石과 一石으로 된 面石 또는 上層基壇의 甲石들이 는 데 되고 上層基壇 甲石을 礎石으로 代用한 기둥들이 있다. 그밖의 石材들도 모두 어디에 使用된 것인지 갑자기 判斷하기 어려우나 塔材도 생각되는 石材를 使用하고 있다.

大成殿의 基壇은 前面 中央에 長約一·二m 幅約〇·五m의 中央에 徑約 二五cm

의 複瓣과 素瓣의 蓮瓣을 交互로 配置한 蓮華의 心房은 四區로 區分하여 中央과 各區에 一顆씩의 房珠를 넣은 特異한 八瓣蓮花文을 浮彫한 拜石이 끼어 있고 그 左右에는 塔身

